

중국 - 인건비 인상과 경쟁력 유지 중 선택 기로에 서 <2/2>

◎ 인건비 상승은 양날의 칼

인건비가 오르면 중국 경제에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원동력이 더 커지게 된다.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빈부의 차가 줄어들고 소비가 커지며 경제 성장 시대 때의 값싼 제품의 수출이 줄어들고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외국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업에게는 산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이노베이션(innovation : 技術 革新)을 강화하고 제품 부가 가치(製品 附加 價值)를 향상시키게 된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흐름은 중국을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으로 바뀌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다. 임금 인상은 기업의 이익 폭을 압박하고 특히 “양말 100 켤레를 팔아서 겨우 1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제조업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국무원 · 발전 연구 센터 · 중국 기업 경영자 조사 시스템(國務院 · 發展 研究 center · 中國 企業 經營者 調查 system)의 리포트에 의하면, 기업 경영자의 거의 80%는 “인건비 상승은 장차 기업이 직면하는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수출을 원하는 중국 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 상무성의 보도관(報道官)은 지난번에 “2010년 들어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재료 값이 오르고 인건비 상승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통년(通年) 수출 정세는

방심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 보였다.

중국 경공 공예품 수출입 상회(中國 輕工 工藝品 輸出入 商會) 부회장에 의하면 인도나 베트남 등 주변 여러 나라의 인건비가 중국보다도 낮다는 것으로, 외자계 기업(外資係 企業)의 일부는 이미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업무의 일부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노동 과학 연구소의 부소장은 “일부 업계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난의 영향을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평(comment)하였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이고 한쪽을 고르기가 어려운 두 갈래의 흐름이다. 한 흐름은 경제 구조를 빨리 조정하여 빈부 격차를 줄여 성장의 내적인 원동력을 강화하려면 값싼 노동력 시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너무 오르면 산업 경쟁력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고용이 감소되는 쪽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2010년에 들어서 도시부의 신규 고용이 급증하고 등기 실업률(登記 失業率)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증일감(一增一減)은 중국 고용 정세가 위로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정세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 자원 사회 보장성(人力資源 社會 保障省) 예측으로는 중국 국내 도시부가 2010년에 노동력을 공급한 수는 2,400만 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신규 고용은 1,200만 명에 머물고 있다. 농촌 잉여 노동력도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용과 체면적인 고용’의

균형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중앙 정부가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장려를 고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루트로 평가하여 충분히 고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는 당국이 국민 소득 배분 조정책(國民所得配分調整策)을 빨리 정하여,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 소득 비율과 1차 배분에서 차지하는 노동 보수 비율을 빨리 위로 올려, 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다.♣